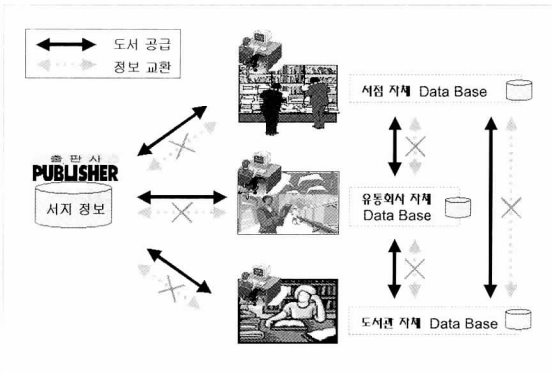


한국적 특성 반영한 출판유통 표준 마련해야

출판유통 표준화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호 | 한국출판유통 경영기획실 부장



ONIX 체계에 따른 출판사, 서점, 유통회사, 도서관간의 도서 공급 및 정보교환 흐름도.

최근 국내의 기업들이 e-비즈니스나 전자상거래(EC)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돼왔던 것이 거래하는 상품 정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상품 정보 체계의 도입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산업에서는 상품의 속성정보를 표현하는 국제표준 가운데 하나인 'GDAS' (Global Data Alignment System)를 도입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업종 내에 제조·유통·물류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GDAS' 표준과는 별도로 매우 복잡한 상품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출판물의 상품 정보 교환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999년 미국과 영국의 출판 서점업계를 중심으로 ONIX(ONline Information eXchange)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체계가 만들어졌고, 다행히 국내 출판계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한국출판유통(주)의 강력한 제안으로 문화관광부의 지원 속에서 범 업계가 참여하는 출판유통현대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출판유통 표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출판유통의 정보시스템화가 진전되고, 출판물의 전자상거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판사, 서점, 유통회사, 도서관 등 출판물 공급체인(Book Supply Chain) 상의 관련 업체들이 조기에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로 출판물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가공, 교환이 가능한 표준화된 체계 구축이 거론되고 있다. 출판유통 표준화의 필요

성은 다음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유통채널 확대 등으로 정보 교환 표준화 요구돼

첫째, 출판물 유통업과 관련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수가 증가하지만 출판사, 유통회사, 서점 등은 상호간에 상품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각 업체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규 등록, 정보의 변경과 삭제 등에 관련되는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자유롭게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상품의 속성과 서지 정보를 교환해 중복된 업무를 제거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간 정보교환(Information Exchange)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출판물 유통의 환경 변화에 따라 책을 판매하는 전통적 개념의 서점에서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일반 소매점(백화점, 마트, CVS) 등으로 유통채널이 확대되기도 하고, 반대로 서점들도 책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CD, 문구, 소프트웨어 등 유통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호환할 수 있는 정보 교환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출판

유통의 표준화를 논의할 때 책만의 특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말해왔다. 하지만 책도 주문받아 수·배송되고, 매장에 진열돼 판매되면 재주문되는 것처럼 다른 상품과 같은 형태로 유통되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책의 정보 수집처가 서점매장에서 책의 표지, 목차 등 다양한 도서 정보는 물론 그 책에 대한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인터넷 웹페이지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메타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서점(인터넷서점 포함), 유통회사, 도서관 등이 각기 다른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비표준화는 출판사가 신속하게 다양한 도서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그밖에도 표준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출판 콘텐츠가 종이책 이외에 전자출판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미디어를 함께 취급할 수 있고 미래의 출판유통 시장의 변화에 대비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출판업계의 시스템 체계 존중해야

출판유통 표준화는 그 중요성과 범위를 볼 때 단기간에 완성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기존 출판물 유통과정과 정보시스템 체계를 가능한 존중하면서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공동화 사업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각 업계(출판사, 서점, 유통회사, 도서관 등)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표준화된 출판물 상품 정보의 데이터 요소, 코드 및 분류 체계,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포맷 등을 정의하고 규정해야 한다.

최근 전통적인 EDI 표준도 XML 등 구조적 확장 언어를 활용한 정보 교환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표준화 기반이 없고 출판유통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년간 국제적인 출판유통 전문가와 표준화 전문가들이 작업한 국제표준(ONIX)을 연구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의 표준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